

201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

정답 및 해설

• 5교시 제2외국어/한문 영역 •

[한문 I]

1	①	2	①	3	⑤	4	③	5	②
6	⑤	7	④	8	①	9	②	10	①
11	④	12	①	13	④	14	③	15	③
16	⑤	17	⑤	18	②	19	②	20	④
21	②	22	⑤	23	①	24	③	25	④
26	②	27	④	28	③	29	⑤	30	⑤

1. [출제의도]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활용하기
대화에서 ‘소나무[松] 아래[下]에서 웃으며[笑]’ 이야
기하는[談] 그림[圖]’이라고 하였으므로 ㉠에 알맞은
것은 ‘笑’이다.
2. [출제의도] 한자의 모양과 음 알기
木(목) + 且(차) = 査(사) 조사하다
興(여) + 手(수) = 擧(거) 들다
3. [출제의도] 같은 뜻을 지닌 한자 찾기
ㄱ. (원) 멀다 - (근) 가깝다 ㄴ. (시) 처음 - (종) 끝
ㄷ. (휴) 쉬다 - (식) 쉬다 ㄹ. (단) 다만 - (지) 다만
4. [출제의도] 한자의 짜임·총획·음 알기
그림에 제시된 글자는 ‘泉’의 갑골문이며, 총획은 ‘9
획’이다. ‘實踐(실천)’의 ‘踐(천)’과 음이 같다. ‘源泉
(원천)’은 ‘사물의 근원’을 뜻한다. ① (물) 사물 ②
(우) 비 ③ (천) 샘 ④ (양) 바다 ⑤ (천) 얕다
5. [출제의도]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하기
가로 열쇠는 ‘錦衣夜行(금의야행)’, 세로 열쇠는 ‘錦
上添花(금상첨화)’로 ㉠은 ‘錦(금) 비단’이다.
6. [출제의도] 어휘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
광고의 ㉠에 들어갈 것은 ‘節約(절약)’이다. ① 정화
② 예방 ③ 양보 ④ 기부
7. [출제의도] 한자의 의미 알기
대화의 내용에서 ‘경사스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’을
의미하는 건물은 ‘慶會樓(경회루)’이다.
8. [출제의도] 시의 주제를 이해하고 성어에 적용하기
① 외화내빈: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. ② 각주구
검: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
집하는 어리석음. ③ 무위도식: 하는 일 없이 놀고먹
음. ④ 중구난방: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
지껄임. ⑤ 용두사미: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함.
9. [출제의도] 단문의 내용과 주제 이해하고 적용하기
㉠에 알맞은 것은 ‘② 내가 미워하는 아이를 먼저 안
아 품어 주다.’이다. 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.
③ 세 살의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. ④ 내 배가 이미
부르면 종의 굵주림을 살피지 않는다. ⑤ 궁한(운이
없는) 사람의 일은 뒤집어져도 역시 코를 다친다.
10. [출제의도] 어휘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
공책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‘根幹(근간)’이다. ② 지엽
③ 본질 ④ 핵심 ⑤ 요점
11. [출제의도] 단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어에 적용하기
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.

- ① 금과옥조: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
칙이나 규정. ② 사필귀정: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
돌아감. ③ 풍전등화: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
있음. ④ 등하불명: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
지 못함. ⑤ 삼성오신: (하루에) 세 번 내 몸을 살핌.
12. [출제의도] 한자문화권의 문화 이해하기
㉠에 알맞은 한자는 ‘招(초) 부르다’이다. ② (차) 빌리
다 ③ (송) 보내다 ④ (유) 부르럽다 ⑤ (수) 묵습
13. [출제의도] 단문의 내용 이해하기

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묻지 않으면 끝내 모르는
것에 그칠 뿐이니,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
구하면 마침내 알 수 있다.

본문 풀이 참조.

[14 ~ 15]

- (가) 임금은 배요, 백성은 물이다. 물은 곧 배를 띄우
기도 하고, 물은 곧 배를 뒤엎기도 한다.
- (나) 맹자가 말하기를 “백성이 가장 귀중하고, 사직이
다음이고, 군주는 (가벼운) 것이다. 이 때문에 미
천한 백성에게 마음을 얻은 이는 천자가 되고 천
자에게 마음을 얻은 이는 제후가 된다.”

14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과 주제 이해하기

(가)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한자는 ‘輕(경)
가볍다’이다. ① (확) 확실하다 ② (철) 밝다 ④
(예) 기리다 ⑤ (유) 넉넉하다

15. [출제의도] 단어의 독음 알기

㉠의 독음은 ‘제후’이다.

[16 ~ 18]

임금이 말했다. <중략> “태종실록을 춘추관에서 지금 이
미 편찬을 마쳤다. 내가 이를 (한번) 보려고 하는데 어떤
가?” <중략> 신장 등이 말했다. “이번에 편찬한 실록에는
모두 본받을 만한 좋은 말과 훌륭한 정사만이 실려 있어
서 고칠 것도 없으려니와 하물며 전하께서 이를 고치시는
일이야 있겠습니까? 전하께서 만약 그것을 보신다면 후세
의 임금이 반드시 (이를) 본받아서 (그것을) 고칠 것이며,
사관도 또한 군왕이 불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
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무엇으로써 장래에 믿음을 전할
수 있겠습니까?” 임금이 말했다. “그렇구나.”

16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을 풀이하고 이해하기

‘謁見’에서 ‘見’의 음은 ‘현’이다.

17. [출제의도] 단어의 짜임 알기

㉡後世(후세): 수식 ① 일출: 주술 ② 승부: 병렬 ③
수면: 병렬 ④ 수신: 술목 ⑤ 길몽: 수식

18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

㉢의 내용으로 보아 임금이 實錄(실록)을 보면 안
되는 이유는 사관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아서
후세에 믿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[19 ~ 20]

의복은 오염된 곳이 있으면 한 번 씻어 없앨 수 있으
나 시대의 풍속은 한번 오염되면 백 번 씻어도 제거되
지 않는다. 대개 풍속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
데, 점차 오염되기는 쉬우나 바꾸어 개혁하기는 어렵다.

19. [출제의도] 한자의 독음 알기

易(이) 쉽다 / (역) 바꾸다 ㄱ. 용인 ㄴ. 무역 ㄷ. 교역 ㄹ. 평이

20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기

본문 풀이 참조.

[21 ~ 22]

호랑이가 온갖 짐승을 잡아먹다가 여우를 잡았다. 여우가
말하길, “그대는 감히 나를 먹을 수 없다. 하느님이 나로
하여금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지금 그대
가 나를 잡아먹으면 이것은 하느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
다.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거든 내가 그대를
위해 먼저 갈 것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라와 모든 짐승이
나를 보고서 감히 달아나지 않는지를 보아라.”라고 하였다.
호랑이가 그렇다고 여겨서 드디어 그(여우)와 더불어 가
니 짐승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다.

21. [출제의도] 한문을 순서대로 바르게 풀이하기

㉠의 풀이순서는 ‘내[吾]가 그대[子]를 위해[爲] 먼
저[先] 가다[行]’이다.

22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

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을
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다.

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제시문이 들어갈 곳은 ㉡이다.

[23 ~ 24]

허노재가 더운 날에 하양 땅을 지날 때 더위를 먹은 것
이 심했는데 길에 배나무가 있어 많은 사람이 다투어 배
를 따서 먹었으나 (허노재가) 홀로 바르게 앉아 있으니
누군가 말하기를 “세상이 혼란하여 이 배나무는 주인이 없
소.”라고 하니 (허노재가) 말하기를 “배나무는 주인이 없
다 하나 내 마음에도 어찌 주인이 없겠는가?”라고 하였다.

23. [출제의도] 한자의 문맥적 의미알기

‘㉠危’의 의미는 ‘正(정) 바르다’이다. ② (환) 기쁘다
③ (경) 다투다 ④ (런) 잇다 ⑤ (시) 모시다

24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

㉢은 ‘나의 양심을 속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.’는 의미이다.

[25 ~ 27]

그 후에 다시 아름다운 용모의 남자를 뽑아 (그를) 단
장하고 꾸며서 화랑이라 이름 짓고 (그를) 받드니, 무리
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. 때로는 도덕과 의리로써 함께
연마하고, 때로는 노래와 음악으로써 함께 기뻐하며, 산
수를 유람하여 즐겨, 멀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. 이
로 인해 그 사람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알아서, 그 가운데
뛰어난 사람을 뽑아 조정(그를) 천거하였다. 그러므로
김대문의 『화랑세기』에 이르기를 “현명하고 충성스러운
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,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도
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.”고 하였다.

25. [출제의도] 한문을 바르게 풀이하기

‘㉡從’은 ‘~로부터’로 풀이한다.

26. [출제의도] 허사의 쓰임 알기

‘於(어)’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‘于(우)’이다.

27. [출제의도] 한문의 내용 이해하기

본문 풀이 참조.

[28 ~ 30]

(가) 천 석들이 저 큰 종을 보게나, (종 채가) 크지
않으면 쳐도 소리가 없구나. 어떠한가 두류산은,
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네.

(나) 강이 푸르니 새는 더욱 하얗고, 산이 푸르니 꽃
이 불타는 듯하네. 울 봄도 본 듯 또 지나가니,
어느 날이 (고향에) 돌아갈 해인가?

28. [출제의도] 한시를 바르게 풀이하기

본문 풀이 참조.

29. [출제의도] 한시의 형식과 특징 알기

(가)의 제1구와 제2구는 대우(對偶)가 아니다.

30. [출제의도] 한시의 내용 이해하고 적용하기

㉢에는 ‘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
움’이 드러나 있다.